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1. **선교 학교:** 선교 훈련을 위한 선교학교가 오는 6일(목)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단기 선교 훈련 일정 참조).
2. **감사:** 지난주에 개최된 뉴질랜드 노회에 수고한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 **기도:** 이번 주는 기섭 형제를 위한 특별기도 주간으로 선포합니다(금주 기도 제복란 참조, 릴레이 기도표 작성).
4. **수료:** 새 가족 성경공부 수료자입니다. 인도자: 방명아 집사, 수료자: 이옥화 성도
5.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6. **월례회:** 부부, 1남 선교회 월례회가 각각 있습니다.
7. **참조:** 매월 교회 일지를 참조하여 교회를 섬깁시다.

## 교우 소식

**개업:** 양봉옥, 최옥진 집사 - TOSHI (일식)  
Shop 17 Remuera Mall, 319 Remuera (520-7592)

**모친상:** 박영태(박수현) 집사 - 슬픔과 당황스러움에 함께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10월 예배 기도자 및 안내자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안내
2일	박병민	조은유	신미숙	최재학/노은숙
9일	최득수	김성희	정덕수	최재학/노은숙
16일	유승재	김정민	김교섭	최재학/노은숙
23일	정관영	이예슬	심경순	최재학/노은숙
30일	이광희	장연식	안재현	최재학/노은숙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기섭이를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여 올바르게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2. 오랜 투병 생활에 지쳐 있는 기섭이가 인내심을 가지며,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치료를 거부하지 않도록. 당뇨와 백혈구 수치가 정상적이 되어 3차 항암치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3. 골수 이식을 준비하는 형인 진섭이에게 담대함과 이식을 위한 검사 결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김, 문 집사님이 지치지 않고 큰 어려움 중에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4. 교회 안에서 드러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곧 개강하는 선교학교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훈련받으며, 강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도록

## 갈보리 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지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지역)
- ▷NIBC(한동대 선교단체)

### 국내 선교지

- ▷City Mission 섬김
- ▷밀알장애우 봉사

## 10월 교회 일지

### 선교 학교 개강:

10월 6일 (매주 목요일)

### 중고등부 수련회:

10월 14일(금) - 15일(토)

### 감사주일:

10월 23일 (주일)

### 세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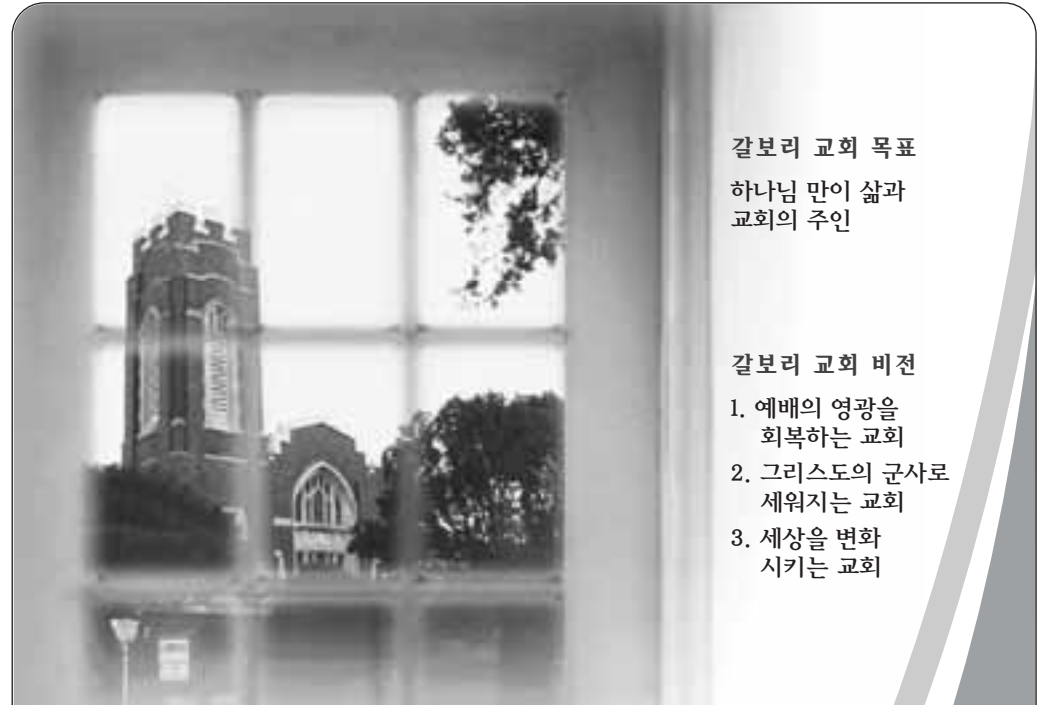
10월 30일 (주일)

### 단기 선교 훈련 일정

	강의 주제	강사
10/6	개강예배/ 바누아트배우기	이태한 목사
10/13	선교와 세계관	배형근 강도사
10/20	선교의 역사	변영우 전도사
10/27	선교사의 삶과 비전	선우형식 목사
11/3	예배와 영적전쟁	토우마타 선교사
11/10	단기선교의 이해	이태한 목사
11/17	선교와 기도	안광국 목사
11/24	바누아트 배우기/ 종강예배	진혜령 전도사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정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휴무장로	: 김영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윤형권
반주	: 송민영, 유지선



### 갈보리 교회 목표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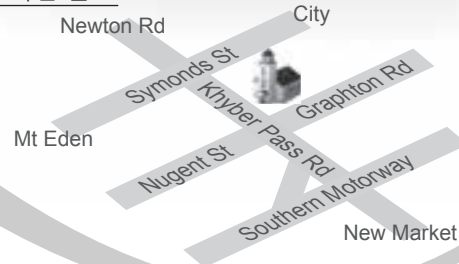
###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 찾아오시는 길



### 예배시간 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1:00PM 본당	유아부	주일 1:00PM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3:00PM 본당	아동부	주일 1:00PM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7:30PM 본당	중고등부	주일 1:00PM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5:50PM Chapel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10월 2일

주보 13권 40호

www.calvary.org.nz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 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로 부름	미가 4:2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7장	다함께
*성서교독	65. 시편 149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90장	다함께
대표기도	박병민집사	
성경봉독	사도행전 2:42-47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b>교회의 능력</b>	이태한목사
찬송	436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 성서교독 65. 시편 149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이다**  
 춤 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못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슴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다같이) 기뻐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 순서 안내 | 다음 주 기도: 최득수집사 10월 16일: 유승재장로

건축 헌금 | 지난 주 헌금: \$200.00 총계: \$599,705.19

## 주일2부예배

오후 3시	청년찬양단		다함께
찬양	조은유청년		다함께
기도	인도자		다함께
성경봉독	사도행전 16:25-34	인도자	다함께
설교	<b>복음의 영향력</b>	심창진목사	다함께
찬송	모든 민족에게	다함께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다함께
교회소식	인도자		다함께
축도	심창진목사		다함께

다음 주 기도: 김성희집사

##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수요찬양단		다함께
찬양	신미숙집사		다함께
기도	인도자		다함께
성경봉독	사사기 3:1-11	인도자	다함께
설교	<b>이스라엘의 가시</b>	이태한목사	다함께
합심기도	인도자		다함께
광고	인도자		다함께
찬송	445장	다함께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임병숙권사  
다음 주 기도: 정덕수장로

## 갈보리 칼럼

### 절대 가치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됩니다.

-이태한 목사

189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프란시스 웨퍼 박사가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세계의 지성들이 모인 가운데 이 시대의 방향과 믿음의 갈 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에 일어났던 가장 커다란 비극은 사람들이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린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은 절망의 선 밑으로 떨어졌다.” 19세기 이전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제 아래서 옳다, 틀리다 하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부터 오늘날의 사람들은 절대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는 반드시 한 여인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19세기 전까지는 누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깨뜨리는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받아들이고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이혼이 왜 죄냐?’ 라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한 남자와만 살아야 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고 따지고 들게 되면서 절대 표준과 절대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동성애는 죄가 아닌 또 다른 한 면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뉴질랜드는 물론 세계 곳곳에 버젓이 자행되고 심지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던 한국에서도 공영방송에서 드라마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현대의 도덕적인 혼란과 문제는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을 버리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썩 내키지 않아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받아들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 내가 싫은데.” 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라는 절대 가치에 대해 현대인들은 “그것이 왜 우상이냐?” 라고 따지며 절대 가치를 무시해버립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진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아담의 후손임을 자처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을 핑계 삼지만 내가 먹고 싶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는데 어쩌냐 하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 가치라는 단어 앞에 ‘절대’ 라는 접두어가 붙어 딱딱하고 엄격하다는 뉘앙스를 선입견으로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인정하고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치는 절대로 엄격하거나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횡단 보도에서 신호가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한다.” 이것이 절대 가치입니다. 파란불일 때 건너지 않고 빨간불일 때 건너면 죽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한다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빨간불일 때 건너도 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긴 인간은 절대 가치인 파란불에 건너는 것을 무시하고 빨간불일 때 많이 건너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비극임을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신앙에도 절대 가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절대 가치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예수님도 구원자가 될 수가 있다 말하여 우리의 절대 신앙의 가치에 은근슬쩍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흠집을 멋있다고 하면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청바지에 구멍을 내고 너털너털하게 입고 다니는 것이 멋이라고 느껴 입고 다니는 사람과 같은 현상입니다. 절대 가치, 절대 표준의 신앙은 절대일 때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의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이 필요합니다.